

大柴胡湯이 太陰人 病證用藥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김지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Daesihog-tang* on Taeum-in's Pathology and Prescription

Ji-Hwa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Daesihog-tang* on Taeum-in's pathology and prescription in 『Donguisusebow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thods

The pathologic condition in which *Daesihog-tang* used and the relevant herbs and prescriptions in 『Sanghanron』, 『Donguibogam』, 『Dongmuyooogo haedong』, 『Chobongwon』, and 『Donguisusebowon』.

Results and Conclusions

1. *Daesihog-tang* in 『Sanghanron』 was used to the symptom of Yangmyung disease merging with Soyang disease. In 『Donguibogam』, its indications were mainly used to the severe fever-symptom of Yangmyung disease and expanded to Onbyeong and so on.
2. The concept of *Daesihog-tang* in 『Donguibogam』 was changed into Hwanggeumdaehwang-tang in 『Chobongwon』, which can be used to treat Onbyeong with heat-dysenteric diarrhea, and severe fever of Taeum-in.
3. The notion of combination between Daehwang and hwanggeum used in 『Dongmuyooogo haedong』 and 『Chobongwon』 was connected to Chungmongsukgondamhwan or Jogakhwanggeumdaehwang-tang in 『Chobongwon』. Especially, Jogakhwanggeumdaehwang-tang for Yeokkigammo and severe constipation was formed while the concept of Onbyeong in Hwanggeumdaehwang-tang merged with the usage of Jogak and Daehwang or Yisunggugo-hwan.
4. Jogakhwanggeumdaehwang-tang influenced on the usage of Jogakdaehwang-tang for Yangdok and Onbyeong, while the usage of Chungmongsukgondamhwan was not found in 『Donguisusebowon』.
5. As a result, *Daesihog-tang* may be presented without usages for a specific pathology in 『Donguisusebowon』 because it indirectly influenced on the concept of Yangdok and Onbyeong of Taeum-in, and the formation of Jogakdaehwang-tang in 『Donguisusebowon』.

Key Words: *Daesihog-tang*, Hwanggeumdaehwang-tang, Jogakhwanggeumdaehwang-tang, Jogakdaehwang-tang, Yangdok, Onbyeong

Received February 21, 2017 Revised February 24, 2017 Accepted March 23, 2017

Corresponding Author Ji-Hwa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il hospital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21, Keunumul-ro, Jung-gu, Incheon, Rep. of Korea
Tel: +82-32-770-1293 E-mail: jani77@gachon.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시호탕(大柴胡湯)은 마황탕(麻黃湯), 계마각반탕(桂麻各半湯),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과 함께 『동의수세보원·갑오본(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이하 『갑오본』), 『장중경 상한론중 태음인병 경험설방약 4방(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에 제시되어 있다. 이 4개의 처방은 개초(改抄)를 거친 『동의수세보원·신축본(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신축본』)에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마황탕과 조위승기탕의 용례는 태음인의 병증론에서 제시되며, 계마각반탕의 용례는 김의 연구¹⁾에서 보고되었듯이 『갑오본』에서는 소음인, 소양인 및 태음인 병증론에서 제시되며, 개초(改抄) 후 『신축본』에서는 소음인과 소양인 병증론에서 제시된다. 하지만 다른 세 처방과는 달리 대시호탕에 관한 용례는 『갑오본』 혹은 『신축본』의 병증론 본문 중 어느 곳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갑오본』 혹은 『신축본』에 인용된 장중경 상한론의 경험 처방들 모두 병증론 본문에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병증론 본문에 대시호탕의 용례가 제시되지 않는 대신에 ‘소양병이 양명에 전속되어 오한이 없고, 반대로 열만 나며 대변이 굳고 소변이 붉으며 헛소리를 하고 배가 창만하여 조열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는 ‘주치증’이 본초조성과 함께 『장중경 상한론중 태음인병 경험설방약 4방』에 제시된다¹⁾. 이는 대시호탕이, 주치증없이 다른 체질에 용례가 제시되는 계마각반탕과는 다르게, 태음인의 병증의 성립에만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시호탕이 태음인의 병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보고된 적은 전혀 없다. 이에 저자는 대시호탕의 원 출전인 『상한론(傷寒論)

(이하 『상한론』)과 『갑오본』 혹은 『신축본』의 주된 인용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이하 『동의보감』), 그리고 이제마가 저술한 기타 서적들의 내용을 통해 대시호탕이 태음인의 병증과 처방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대시호탕의 원출전인 『상한론』에서 대시호탕의 용례를 파악해보았다. 또한 이제마의 저작인 『갑오본』과 『신축본』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작성된 『동무유고해동(東武遺稿 海東)』(이하 『동무유고』),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이하 『초본권』)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마의 저작에서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마가 『갑오본』과 『신축본』을 집필하기 위해 참고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²⁾ 기존 의가들의 처방이나 적응증을 살펴보았다. 그밖에 기존에 출판된 관련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통해 저자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에 인용된 주요 판본은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되었다.

- 1) 『상한론』은 2000년 고문사에서 출판된 채인식의 저서인 『상한론역전(傷寒論譯詮)』²⁾을 저본으로 하였다.
- 2) 『동의보감』은 2009년 법민출판사에서 증보판으로 출판된 허준의 저서인 『신대역 동의보감(新對譯 東醫寶鑑)』³⁾을 저본으로 하였다.
- 3) 『동무유고』는 1999년 국역한의학대계 권15로 해동출판사에서 출간된 『동무유고 해동(東武遺稿 海東)』⁴⁾을 저본으로 하였다.
- 4) 『초본권』은 1951년 김구익이 필사한 내용을 2005년 박성식이 역해(譯解)한 『동의수세보원사상초

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張仲景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大柴胡湯 柴胡 四錢 黃芩 白芍藥 各二錢五分 大黃 二錢 枳實 一錢五分 治少陽轉屬陽明 身熱 不惡寒 反惡熱 大便堅 小便赤 譫語 腹脹 潮熱

2) 이제마는 『갑오본』에서 본인이 『동의보감』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少陰論 卷之二』 5-1 ‘因許浚東醫寶鑑所載 摘取 張仲景傷寒論文及諸家所論 抄集一通 別附疑難 以爲 太少陰陽四象人 傷寒時氣 表裡病論’

Table 1. The Usage and Composition of Dasiho-tang Presented at 『Sanghanron』

『傷寒論』의 편명	대시호탕 관련 조문
『辨太陽病脈證并治中 第六』	‘太陽病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 ³⁾
『辨太陽病脈證并治下 第七』	‘傷寒十餘日熱結在裏 復往來寒熱者 與大柴胡湯...’ ⁴⁾
『辨太陽病脈證并治下 第七』	‘傷寒 發熱汗出不解 心中痞硬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主之’ ⁵⁾

본권(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⁵⁾을 저본으로 하였다.

- 5) 『감오본』은 이제마가 1894년(甲午年)에 저술한 내용을 2002년 김달래가 편역(編譯)한 『동의수세보원 감오구본(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⁶⁾을 저본으로 하였다.
- 6) 『신축본』은 1901년(辛丑年)에 울동계(栗洞契)에서 출판한 내용을 2003년 여강출판사에서 다시 출판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⁷⁾을 저본으로 하였다.

『감오본』과 『신축본』을 함께 지칭할 때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이하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칭하였으며, 이제마의 저서에서 인용된 문장의 경우 페이지번호 대신 경희대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에서 2010년에 발행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사상의학 문헌집(四象體質科 臨床便覽: 四象醫學 文獻集)』⁸⁾에 제시된 조문번호를 함께 기재했다.

II. 本論

1. 『상한론』에 제시된 대시호탕 관련 내용

먼저 『상한론』을 살펴보면, 대시호탕은 시호(柴胡) 반근, 황금(黃芩) 3냥, 작약(芍藥) 3냥, 반하(半夏) 반근, 생강(生薑) 5냥, 지실(枳實) 4매, 대추(大棗) 12개, 대황(大黃) 2냥으로 구성된 처방으로⁶⁾, 『상

한론』에서 대시호탕과 관련된 용례는 총 3번 제시된 다(Table 1).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시호탕에 대한 『상한론』의 첫 번째 용례는 태양병 10일 경과한 후 태양병 표증이 소실되어 소양병이 되었는데, 도리어 사하(瀉下)를 시킨 후에도 아직 시호증이 남아 있으면 소시호탕을 쓰지만, 구역(嘔逆)이 그치지 않고 심하부가 답답하고 불편함이 있는(心下拘急 鬱鬱微煩) 실증(實證)의 증상이 함께 동반되면 대시호탕을 쓴다는 내용이다. 즉, 대시호탕은 소양병과 양명병과 병발한 상태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두 번째 용례는 상한병이 10여일 정도 되어 한열왕래(寒熱往來)하는 소양병의 증상과, 열로 인해 속이 신체 내부에 멎어있는 양명병의 위가실(胃家實) 증상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 대시호탕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소양병과 양명병이 함께 나타난 상태에 대시호탕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용례는 태양병에 한법(汗法)을 쓰고도 병이 풀리지 않아서, 가슴 한가운데가 불편하고(心中痞硬), 설사(下利)와 구토를 할 때 대시호탕을 쓴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에서 설사는 허증의 설사가 아니라 내부의 실열로 인해 나타나는 열성설사로 볼 수 있다⁷⁾.

三兩 芍藥三兩 半夏半斤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大黃二兩 右八味 以水一斗二升 煮取六升 去滓 再煎 溫服一升 日三服 一方用大黃二兩 若不加大黃 恐不得爲大柴胡湯也’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 고문사, 2000. p87.)

7) 채인식은 대시호탕 조문에서 설사가 언급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 下利가 있는 證에 大柴胡湯을 用하는 것이 문제되어 金鑑에는 下利의 下字를 不字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山田도 下利의 上에 不字가 빠졌으니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心下가 痞硬하고 嘔吐하면서 下利하는 것은 心腹이 濡軟하고 嘔吐하면서 下利하는 裏虛證과 不同하기 때문이니...”(위의 책, p130.)

3) 위의 책, p86.
 4) 위의 책, p108.
 5) 위의 책, p129.
 6) 『傷寒論』 『辨太陽病脈證并治中 第六』 ‘柴胡半斤 黃芩

결국 『상한론』에서 제시되는 대시호탕은 오치(誤治)를 하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해서 소양병과 양명병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이며, 리열로 인한 위가실의 변비뿐만 아니라 리열로 인한 열성설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2. 『동의보감』에 제시된 대시호탕 관련 내용

『동의보감』에서 대시호탕은 총 18번 언급되며 (Table 2), 『동의보감 잡병(東醫寶鑑 雜病)』이하 『동의보감 잡병』, 『한(상) 상한리증(寒(上) 傷寒裏證)』(이하 『한 상한리증』)에서 처방구성이 제시된다. 『동의보감』의 대시호탕은 『상한론』의 대시호탕과 약물 구성은 동일하지만, 용량은 『의학정전(醫學正傳)』에 의거하여 시호 4돈, 황금, 작약 각 2돈반, 대황 2돈, 지실 1돈반, 반하 1돈, 그리고 생강 3편과 대추 2개 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 내경(東醫寶鑑 內景)』이하 『동의보감 내경』, 『진액 수족한(津液 手足汗)』에서는 위 부위에 열이 모여 있는 양명증의 경우 손발에 땀이 나기 때문에 대시호탕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의보감 외형(東醫寶鑑 外形)』이하 『동의보감 외형』에서는 흉복부의 통증에 대시호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통증은 양명부의 리열(裏熱)로 인한 리실증(裏實證) 때문이므로 맥은 실하며 대변이 굳거나 보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한다. 결국 『동의보감 내경』과 『동의보감 외형』에서는, 소양양명합병에 대시호탕을 사용한다는 『상한론』의 내용과는 달리, 주로 양명증의 리열을 해소하는데 대시호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 잡병』에서는 여러 곳에서 대시호탕이 다양하게 언급된다. 『용약 십팔제(用藥 十八劑)』에서 대시호탕은 리열을 완만하게 해소하는 처방으로 언급된다. 『태음형증용약(太陰形證用藥)』에서는 특이하게도 ‘태음형증’에 대시호탕이 제시되는데, 이는 대시호탕이 소양병이나 양명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상한론』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의 연구⁹⁾에 의해 따르면 동의보감의 형증용약 부분은 형을 증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복부에 생기는 문제를 태음형증으로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양명경의 리열로 인한 리실증으로 ‘복부에 통증이 생겼을 때’ 불편감을 치료하는 대시호탕이 양명형증보다는 태음형증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복부에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형증의 특징 때문에 태음형증에 대시호탕이 제시되었지만, 리열로 인해 생긴 복부의 리실을 사하한다는 병기적 측면에서는 대시호탕을 양명증에 사용한다는 관점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 상한리증』에서는 대시호탕이 두 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 조문에서는 열사(熱邪)가 리(裏)부위로 전해진 것을 해결할 때 대시호탕이 대승기탕(大承氣湯), 소승기탕(小承氣湯),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의 다음가는 처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조문이 『동의수세보원』 장중경 상한론증 태음인병 경험설방약 4방¹⁰⁾에 대시호탕의 주치증으로 인용된 내용으로, 소양병이 양명병으로 전속하여 오한이 없이 열만 나고 대변은 굳고 소변은 붉게 되고 헛소리를 하면서 배는 창만하면서 조열(燥熱)이 나는 심한 표리구열(表裏具熱)의 상태에 대시호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상) 상한반표반리증(寒(上) 傷寒半表半裏證)』(이하 『한 상한반표반리증』)에서는 표리와 내외 모두 열증을 보일 때, 표증으로 맥이 부하거나 오흭(惡風)이나 오한의 증상을 간혹 동반하면서 동시에 리증으로 헛소리를 하거나(譫言妄語), 열이 심해서 양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揚手擲足)이 공존하는 경우에 대시호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즉, 『한 상한리증』과 『한 상한반표반리증』에서는 심한 리열을 기반으로 표리구열의 증상을 보일 때 대시호탕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상) 상한양厥(寒(上) 傷寒陽厥)』이나 『한(상) 양厥사음(寒(上) 陽極似陰)』 혹은 『한(상) 상한전울(寒(上) 傷寒戰慄)』에서는 열이 양경(陽經)을 지나 음경(陰經)의 속까지 이르게 되면 열이 심하게 잠복하여 겉은 차가운 상태에도 대시호탕을 사용하도록

Table 2. The Usage of Dasiho-tang Presented at 『Donguibogam』

『東醫寶鑑』		대시호탕 관련 조문
內景	津液 手足汗	‘手足汗者 津液自胃府 傍達於外則手足自汗 有熱聚胃府 逼而出之者 此陽明證也 宜大柴胡湯〔方見寒門〕下之『入門』 ⁸⁾
外形	胸 心胃痛當分虛實	‘按之痛反甚者 爲實 宜大柴胡湯〔方見寒門〕下之『仲景』 ⁹⁾
	心胃痛宜下	‘心痛 脈堅實 不大便者 下之 宜大柴胡湯〔方見寒門〕...『丹心』 ¹⁰⁾
	腹 腹痛有虛實	‘其或大便堅 或用手按之痛甚 手不可近者 爲實爲熱 宜大柴胡湯 調胃承氣湯〔並見寒門〕之類『入門』 ¹¹⁾
用藥	十八劑	‘緩劑大胡湯 裏熱〔方見寒門〕 ¹²⁾
	太陰形證用藥	‘太陰 肺爲標 故咽乾 身目黃 脾爲本 故腹滿痛 宜大柴胡湯〔方見下〕...『入門』 ¹³⁾ ‘大柴胡 三承氣 攻熱邪傳裏 『丹心』: ‘下藥 大承氣最緊 小承氣次之 調胃承氣又次之大柴胡湯又次之『東垣』 ¹⁴⁾
	傷寒裏證	‘大柴胡湯 治傷寒病 少陽轉屬陽明 身熱 不惡寒反惡熱 大便堅 小便赤 譫語 腹脹 潮熱 柴胡 四錢 黃芩 芍藥 各二錢半 大黃 二錢 枳實 一錢半 半夏 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正傳』 ¹⁵⁾
寒(上)	傷寒半表半裏證	‘治表裏內外俱熱之證 表者 或脈浮 或頭痛 或惡風 或惡寒 裏者 或譫言妄語 或揚手擲足 欲汗則裏證已急 欲下則表證尙存 通宜大柴胡湯『海藏』 ¹⁶⁾
	傷寒陽厥	‘傷寒邪在三陽 則四肢熱 半表裏及太陰 則邪漸入內 故四肢溫 至少陰 厥陰 邪入深而陷伏於內 則四肢厥冷 然先由熱後厥者 傳經熱厥也. 輕則四逆散 重則大柴胡 承氣湯下之『入門』 ¹⁷⁾
雜病	陽極似陰	‘陽證之極 熱伏於內 故身涼 四肢厥逆 狀若陰證. 但身雖冷 而不欲近衣 神雖昏而氣色光潤 脈必沈滑而有力 此陽極似陰也 宜大柴胡湯 或白虎湯『入門』 ¹⁸⁾
	傷寒戰慄	‘若原係熱邪表證慄者 羌活沖和湯 裏證慄者 大柴胡湯『入門』 ¹⁹⁾
	傷寒治法	‘葛根湯 解肌湯 小柴胡 和解半表. 大柴胡 三承氣 攻熱邪傳裏...『丹心』 ²⁰⁾
	寒(下) 可下不可下證	‘若裏熱微者 當微下 大柴胡合解毒湯下之. 熱勢未退 又以大柴胡 合三承氣下之 兩除表裏之熱『宣明』 ²¹⁾
	傷寒賦	‘小柴胡爲少陽之要領 大柴胡行陽明之秘堅 ²²⁾
咳嗽	咳逆治法	‘傷寒熱病 陽明內實 失下而發嘔者 宜調胃承氣湯 大柴胡湯 ²³⁾
痲瘡	痲疾治法	‘桂枝湯 治太陽 白虎湯 治陽明 小柴胡湯 治少陽 意甚明顯...便閉 合大柴胡湯...治痲之法盡矣『入門』 ²⁴⁾
癩疫	癩疫治法	‘表證 用荊防敗毒散 半表裏證 用小柴胡湯 裏證 用大柴胡湯〔方見寒門〕...『入門』 ²⁵⁾

제시하고 있다. 『한(하) 상한치법(寒(下) 傷寒治法), 과 『한(하) 가하불가하증(寒(下) 可下不可下證)』에서도 열사가 리 부위로 전경된 경우에 승기탕류와 함께 대시호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상한부(傷寒賦)』에서는 대시호탕은 양명병의 변비를 통하게 하는 약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상한론』의 대시호탕이 소양병과 양명병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된 반면, 『동의보감』의 대시호탕은 주로 양명병에서 리열로 인해 심한 표리구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리실증으로 대변이 굳고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리 부위로 열이 심하

게 잠복하여 권증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강조되어 설명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의보감 잡병』의 나머지 부분에 제시된 것처럼 이제 대시호탕은 해역(咳逆), 학질(瘡疾), 온역(癩疫)의 범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치증이 확장된다. 상한열병(傷寒熱病)으로 인한 해역의 경우에 조위승기탕과 대시호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태양, 소양, 양명경을 막론하고 대변이 나오지 않는 학질에 게지탕, 백호탕, 소시호탕 등에 대시호탕을 합방할 수 있다. 『상한론』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온역의 경우에도, 표증의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반표반리증의 소

Table 3. The Usage and Composition of Dasiho-tang Presented at Lee Jema's Books

이제마의 저서	조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六統』	11-1 '張仲景所論傷寒病 太陽傷風證 陽明大實大滿證 及三陰證 皆少陰人運氣病也 少陽半表半裏症及陽明熱證 皆少陽人運氣病也 太陽傷風脈緊無汗之證 即太陰人尋常外感也'
	11-2 '張仲景半表半裏病 小柴胡湯易之以敗毒散可也 大柴胡湯易之以黃芩大黃湯可也'
『東醫壽世保元』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大柴胡湯 柴胡 四錢 黃芩 芍藥 各二錢 五分 大黃 二錢 枳實 一錢 五分 治少陽 轉屬陽明 身熱 不惡寒反惡熱 大便堅 小便赤 譫語 腹脹 潮熱'

시호탕(小柴胡湯)과 더불어 리증에는 대시호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이제마의 저서에 제시된 大柴胡湯 관련 내용

이제마의 모든 저서를 살펴볼 때, 대시호탕에 관한 언급은 『초본권』과 『동의수세보원』에서 각 한 번씩만 나타난다(Table 3).

『초본권』에서는 『병변 제6통(病變 第六統)』에서 대시호탕의 명칭만 단 한번 언급된다. 이 부분에서는 장중경이 언급한 상한병이 각 사상체질별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마의 초기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태양상풍증(太陽傷風證)과 양명대실대만증(陽明大實大滿證) 및 삼음병(三陰證)은 소음인의 운기병(運氣病)으로 분류되고, 소양의 반표반

리증(少陽半表半裏證)과 양명열증(陽明熱證)은 소양인의 운기병으로 분류된다. 태양상풍증에 맥이 긴장되고 땀을 흘리지 않는 증상(太陽傷風脈緊無汗之證)은 태음인의 보통의 외감병(尋常外感)으로 분류되는데 태음인의 운기병에 대해서는 따로 이후에 언급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이어, 이제마는 이미 소양인의 질환으로 언급한 반표반리증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소시호탕을 패독산(敗毒散)으로 바꿔 사용하고, 대시호탕을 황금대황탕(黃芩大黃湯)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황금과 대황은 『동무유고』에서 폐약(肺藥)으로 분류되며²⁶⁾ 폐는 태음인의 편소지장(偏小之臟)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에 내포된 의미는 반표반리증이 소양인의 운기병이긴 하지만, 그 중 대시호탕을 사용하는 증상만은 태음인의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본권』뿐만 아니라 이제마의 다른 저서에서도 황금대황탕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의보감 잡병』 『한 상한리증』에 제시된 대시호탕의 내용이 인용되는데, 처방구성 중 반하(半夏) 이후의 내용(“半夏 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은 삭제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마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인용이나 출판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8) 허준. 수정증보판 신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356.
 9) 위의 책, p745.
 10) 위의 책, p747.
 11) 위의 책, p773.
 12) 위의 책, p998.
 13) 위의 책, p1080.
 14) 위의 책, p1092.
 15) 위의 책, p1093.
 16) 위의 책, p1094.
 17) 위의 책, p1095.
 18) 위의 책, p1101.
 19) 위의 책, p1106.
 20) 위의 책, p1127.
 21) 위의 책, p1130.
 22) 위의 책, p1140.
 23) 위의 책, p1138.
 24) 위의 책, p1441.
 25) 위의 책, p1450.

26) 『東武遺稿 海東』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肺藥』 1-2 '黃芩 苦寒 枯瀉肺火 子清大腸 濕熱皆可...大黃 苦寒 破血消瘀 快膈通腸 破除積聚...' 『四象人藥材類·太陰人』 9-3 '黃芩 收斂肺元...大黃 通肺之痢便...'

Ⅲ. 考察

『상한론』에서 처음 제시되는 대시호탕은 소양병 상태에서 오치(誤治)를 하거나 혹은 치료가 미진하여 소양양명합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이때 대시호탕은 소양병의 구역이나 한열왕래와 같은 증상에 심하부가 답답하거나 단단해지는 리실증, 양명병의 위가실증, 혹은 열성 설사가 동반된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반면 『동의보감』에서 제시되는 대시호탕은 소양병의 증상보다는 양명병에 보다 중점을 둔 처방으로 소개된다. 이 때문에 대시호탕은 양명경의 리열이 주축이 된 표리구열의 증상이나, 리실증으로 발생한 흉복부의 통증, 열사의 잠복으로 인한 권증을 해결하는 처방으로 운용된다. 또한 상한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온병, 상한열병 시 나타나는 해역 또는 학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주치증이 확장되어 제시된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동의보감 잡병』 『한 상한리증』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상한론』의 관점보다는 『동의보감』에서 제시된 대시호탕의 개념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양명병의 리열이라는 병증의 특성과 대시호탕의 처방개념이 태음인의 병증용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수세보원』에서 대시호탕이 정확히 어떠한 병증이나 처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음인편에서 제시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동의수세보원』 이전에 쓰여진 『초본권』에서 대시호탕의 개념은 황금대황탕의 형태로 태음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황금대황탕에 내포된 병증이나 처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시호탕이 태음인 병증용약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핵심사항이 된다.

1. 반표반리병, 소시호탕, 대시호탕, 패독산 개념으로 유추한 황금대황탕의 적응병증

황금대황탕의 적응병증을 추정해보기 위해서는, 『초본권』에서 대시호탕과 함께 제시된 ‘반표반리병’

‘소시호탕’, ‘패독산에 내포된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반표반리병’이라는 표현은 『상한론』에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반면 『동의보감 잡병』 『한 상한반표반리증』과 『한(상) 소양형증용약 소양증위반표반리』(寒(上) 少陽形證用藥 · 少陽證爲半表半裏(이하 『한 소양형증용약』))에서 ‘반표반리’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상한반표반리증』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살펴봤듯이 양명리열을 주축으로 한 표리구열의 상황에서 대시호탕을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표반리와 대시호탕이 함께 제시된 『초본권』의 문장은 심한 리열로 인해 표리구열 상태에 놓인 태음인의 병증 상태를 상정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 소양형증용약』에서는 족소양당경은 기승과 옆구리 사이로 지나가는 ‘반표반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증이 위주면 소시호탕을 쓰고, 리증이 위주면 황금탕(黃芩湯)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이때 황금탕은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이라고도 불리며 황금과 백작약(白芍藥) 각 2돈, 감초 1돈으로 구성된 처방이다²⁸⁾. 이 처방은 『동의보감』에서 대황탕(大黃湯), 작약탕(芍藥湯) 등과 함께 제시되는데, 황금탕이나 대황탕이라는 처방명은 『초본권』의 황금대황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황금탕은 농혈리(膿血痢) 증상을 보이면서 몸에 열이 나면서 복통이 있고 맥은 홍삭(洪數)한 경우에 사용된다²⁹⁾. 몸에 열이 나면서 복통이 있는 등의 신체증상은 『동의보감』의 대시호탕 증과 유사하다. 농혈리의 경우는 『상한론』의 대시호탕이 열성설사에 사용되었다는 것³⁰⁾과 연관될 수 있

27) 『東醫寶鑑 雜病』 『寒(上) 少陽形證用藥 少陽證爲半表半裏』, ‘少陽以胸脇之間 爲半表半裏 表多則小柴胡湯 裏多則黃芩湯... 『入門』(허준. 수정증보판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079.)

28) 『東醫寶鑑 雜病』 『寒(上) 熱腹痛』, ‘黃芩湯 治少陽半表半裏 裏證多者 宜用此 一名黃芩芍藥湯 方見大便.’ (위의 책, p1080.)

29) 『東醫寶鑑 內景』 『大便』, ‘黃芩芍藥湯 治下痢膿血 身熱腹痛 脈洪數 黃芩 白芍藥 各二錢 甘草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腹痛甚加桂心 三分 『丹心』 一名黃芩湯’ (위의 책, p534.)

30) 류두저우는 대시호탕의 설사를 이질성 하리(下痢)로 설명했다. “당연히 이때의 하리는 일반적인 설사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痢疾입니다. 설사를 하면서도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

다¹⁰. 『신축본』 『사상인변증론(四象人辨證論)』에서는 태음인에게 리병(痢病)이 생기면 소장(中焦)의 막힌 것이 안개같이 된다고 했다³¹. 『동무유고』 『사상인약재류 태음인(四象人藥材類 太陰人)』에서 황금(黃芩)은 폐의 원기를 수렴하고 대황은 폐의 리변(痢便)을 통하게 한다고 했다³². 그러므로 『한소양형증응약』에 제시된 ‘반표반리’의 개념은 태음인의 흡취지기(吸聚之氣)가 과다해져서 소장 부위가 안개처럼 막혀있는 상태 때문에 리급후중(裏急後重)의 열리(熱痢)가 발생한 병증 상태를 상징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폐독산’은 『초본권』 『권지삼 약방 제일통(卷之三 藥方 第一統)』에서 제시되며 ‘소양인의 외감(少陽外感)’에 사용하는 처방이다³³. 앞서 살펴봤던 『초본권』 『병변 제6통』에 따르면 이제마는 ‘평이한(尋常)’ 외감병과 운기병을 구분지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무유고』에서는 ‘상한(傷寒)’이라는 표현을 보통의 외감병(尋常外感)과는 다른, 보다 심한 질병상태로 사용했다³⁴. 또한 폐독산의 설명 부분에는, 천행시기지병(天行時期之病)을 장중경은 ‘상

한’이라고 명명했으나 이제마가 살던 시대에는 이를 통속적으로 운기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제시된다³⁵. 『초본권』의 『병변 제삼통(病變 第三統)』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중풍(中風), 관격(關格), 인후(咽喉) 응저(癰疽), 온역(瘟疫)과 같은 ‘천행(天行)’에 의해 생기는 제반 질병들은 매우 위중하므로 약을 구비해야 한다는 문장이 언급된다³⁶. 즉, 운기병은 중풍, 관격, 인후, 응저, 온역과 같은 천행 질병들 중 외감이 원인이 되는 질환을 일컫는 표현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온역이 운기병의 범주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초본권』의 폐독산을 구성 중 목통(木通), 차전자(車前子), 생지황(生地黃)을 제외한 강활(羌活), 독활(獨活), 시호, 전호(前胡), 적복령(赤茯苓), 방풍(防風), 형개(荊芥), 감초 등은 온역에 사용되던 형방폐독산(荊防敗毒散)의 구성과 유사하다³⁷. 『초본권』 『병변 제6통』에서 소양인의 ‘양명열증’과 함께 ‘반표반리증’은 소양인의 ‘운기병’이라고 했으므로, 반표반리 시 소시호탕을 폐독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대시호탕을 황금대황탕으로 변경해 사용한다는 내용 역시 온역의 병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표반리’, ‘소시호탕’, ‘폐독산’과 함께 대시호탕이 함께 언급된 경우를 『동의보감』에서 찾아보면, 바로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대시호탕을 온역에 사용한다는 『동의보감 잡병』 『온역 온역치법(溫疫 癘疫治法)』의 조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온병이 발병했을 때, 표증에서는 형방폐독산, 반표반리증에서는 소시호탕, 리증에서는 대시호탕을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³⁸. 이 문장 역시 『초본권』에서 황금대

지는 않고 뒤가 무지근하지요. 이런 증상은... 肝膽의 火氣가 腸胃를 竅박한 實證입니다. 후시수 선생님이 痢疾치료에 大柴胡湯을 썼는데 치험례가 아주 많습니다...裏急後重이 생기지요...이럴테면 설사를 할 때 도리어 大黃, 枳實을 쓰는 것인데 사실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張潔古나 李東垣이 썼던 芍藥湯의 가감법을 보면, 대변이 잦으면서도 잘 통하지 않고 뒤가 묵직한 경우 大黃을 넣습니다. 濕熱이 맺혀서 생긴 下利에는 대황을 넣지 않으면 장 속의 응결된 것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實熱로 嘔吐하면서 下利가 있을 때 大柴胡湯으로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류두저우주 저. 정창현, 김혜일 역. 劉渡舟傷寒論講義. 경기도. 물고기숲. 2012. p.386-387.)

- 3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四象人辨證論』 17-17 太陰人 痢病 則小腸之中焦 壅塞如霧’
 32) 『東武遺稿 海東』 『四象人藥材類 太陰人』 9-3 黃芩 收斂肺元...大黃 通肺之痢便’
 33)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卷之三 藥方 第一統』 12-1 敗毒散 少陽外感...羌活 獨活 柴胡 前胡 木通 車前子 生地黃 赤茯苓 防風 各二錢 荊芥 五分 甘草 三分’
 34) 『東武遺稿 海東』 『病症各論』 20-6 凡少陰人 尋常外感 則惡寒發熱肢節痛 二三日即起 若過四五日 則此傷寒症也 七日不汗則八九日必死... 『傷寒陽證』 21-1 凡少陽人尋常外感 荊防敗毒散 或九味羌活湯 二貼連服 則二三日即起 若荏苒五六日不起 則此傷寒症也 勿論陰人陽人 不觀勢而用藥 則可生者多死 此古人重傷寒 而屢立論者 良有以也’

- 35)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卷之三 藥方 第一統』 12-1...天行時氣之病 張仲景盡稱傷寒病 今俗稱運氣 從俗無妨 故病名異稱...’
 36)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三統』 8-14 中風 關格 咽喉 癰疽 瘧疾 諸般天行之病 無論老少壯年 命脈在牢獄中分者 有醫藥救急則源源得生 無醫藥救急則箇箇斷死 醫藥如此其不可不備也’
 37) 『東醫寶鑑 雜病』 『溫疫 癘疫治法』 荊防敗毒散 治瘧疫及大頭瘧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人參 枳殼 桔梗 川芎 荊芥 防風 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作一貼水煎服[得效][허준. 수정증보판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1451.]

황탕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 온역의 병증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초본권』에서 소양의 반표반리증을 소양인의 운기병으로 분류했으므로 소시호탕을 패독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동의보감』에서 온역에 사용하는 표증의 형방패독산과 반표반리증의 소시호탕의 개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같은 식으로 태음인의 경우 태양상풍증에 맥이 긴장되고 땀을 흘리지 않는 증상을 태음인의 보통의 외감병으로 분류한 후에, 따로 반표반리증에서 대시호탕을 황금대황탕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언급함으로써 『동의보감』에서 온역에 사용하는 대시호탕의 개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반표반리’, ‘소시호탕’, ‘패독산’의 개념과 대시호탕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황금대황탕이 사용될 태음인의 병증은 태음인의 흡취지기(吸聚之氣)가 과다해져서 심한 리열을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이며, 『동의보감』의 내용들로 추정해볼 때 이것은 운기병의 범주 중 ‘온역’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2. 황금, 대황의 용례로 살펴본 황금대황탕, 조각 황금대황탕 그리고 조각대황탕과의 연관성

대시호탕을 구성하는 약물 중 태음인의 약물은 대황과 황금 뿐이다. 대시호탕을 대체하는 황금대황탕은 정확한 처방구성이 제시되지 않지만 황금과 대황을 위주로 구성된 처방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황금과 대황의 용법에 대한 이제마의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대시호탕과 황금대황탕에 내포된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무유고』를 살펴보면 황금은 ‘동무선사사상약성상협고가 폐약(東武先師四象藥性 嘗驗古歌 肺藥)’에서 폐의 화(火)를 없애고 대장을 맑게 하며, 습이나 열 모두 해소시킨다고 제시되며³⁹⁾, 이

개념은 「사상인약재류 태음인(四象人藥材類 太陰人)」에서 폐의 원기(元氣)를 수렴시키는 약으로 새롭게 개념이 정의된다⁴⁰⁾. 대황은 「동무선사사상약성상협고가 폐약」에서 어혈을 깨뜨리고 가슴을 상쾌히 하고 장을 통하게 하며 적취를 깨뜨리는 약으로 정리되어 있으며⁴¹⁾, 「사상인약재류 태음인」에서 폐의 리변(痢便)을 해소하는 약으로 새롭게 개념이 정의된다⁴²⁾. 때문에 「이질약(痢疾藥)」에서도 대황을 사용하게 되며⁴³⁾, 「잡고(雜藥)」의 내용에서 가능할 수 있듯이 이때의 태음인은 복통이 있으면서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大便不決)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태음병(太陰病)」에서는 태음인의 병으로 사십일통(四十日痛), 즉 한궐증(寒厥證) 혹은 장감병(長感病)⁴⁵⁾이 태음인의 ‘상한’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강하게 발산하기 위해(重發散) 웅담을 사용하고, 통하게 하고 설사시키기 위해(通泄; 通腑泄熱) 조각 1돈 반과 대황 3돈을 사용한다고 했다⁴⁶⁾. 또한 대황은 「사상지담약」 폐의 담을 해소하는 강한 약으로 제시되며, 같은 부분에서 황금과 청몽석은 담을 해소하는 약으로 제시된다⁴⁷⁾. 「하약(下藥)」에서는

38) 『東醫寶鑑 雜病』 「溫疫 瘟疫治法」 「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夏發燥疫 宜調中湯 秋發寒疫 宜蒼朮白虎湯 (方見暑門) 冬發濕疫 宜甘桔湯 (方見咽喉) 表證 用荊防敗毒散 半表裏證 用小柴胡湯 裏證 用大柴胡湯 (方見寒門) 宜補 宜散 宜降用 人中黃丸 『入門』(위의 책, p1450.)

39) 『東武遺稿 海東』 「東武先師四象藥性 嘗驗古歌 肺藥」 1-2 黃芩 苦寒 枯瀉肺火 子清大腸 濕熱皆可
 40) 『東武遺稿 海東』 「四象人藥材類 太陰人」 9-3 黃芩 收斂肺元
 41) 『東武遺稿 海東』 「東武先師四象藥性 嘗驗古歌 肺藥」 1-2 大黃 苦寒 破血消痞 快膈通腸 破除積聚
 42) 『東武遺稿 海東』 「四象人藥材類 太陰人」 9-3 大黃 通肺之痢便
 43) 『東武遺稿 海東』 「痢疾藥」 15-1 太陰人 痢疾 大黃 一兩 或 樗根皮 一兩 單服
 44) 『東武遺稿 海東』 「雜藥」 32-1 太陰人 腹痛而大便不決者 大黃 參錢用之 則即效 太陰人 頂上發汗 而始免危也 至背則快免危
 45) 『신축본』에 의하면 40일통은 한궐의 종류로 속직 장감병이나 무한건병이라고 불린다.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12-8 此證 京畿道人 謂之長感病 咸鏡道人 謂之四十日痛 或謂之無汗乾病
 46) 『東武遺稿 海東』 「太陰病」 29-1 太陰人 中焦實而能堅忍... 四十日痛 卽傷寒也 始病五六日 熊膽三分重發散 最爲上策也 皂角一錢半 大黃三錢 一次通泄 次計也 然始病五六日內 用之可也 而大黃 皂角先用之 熊膽後用之 可也 此五六七日 或皂角 熊膽 而解毒 則頂上有微汗 數三日後 則耳腫有汗 又數三日後 則背間有汗 其汗漸次而出於背 則快免危也 其間以麥門冬五味子等類 徐徐助之 而助汗勢可也...
 47) 『東武遺稿 海東』 「四臟之痰藥」 18-2 肺之痰藥 黃芩 青礞石也 肺之痰藥 重用之 則樗根皮 大黃也

태음인을 설사시키는 약으로 곤담환(滾痰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곤담환은 대황과 황금을 주약으로 삼는 처방이다⁴⁸⁾.

다음으로 『초본권』을 살펴보면 흉격을 통하게 하기 위해(通膈) 경한 증상에 대황과 청몽석을 쓰고, 중한 증상에 조각과 과체를 쓴다는 치법이 제시된다⁴⁹⁾. 또한 소음인에게 사용하는 생강(生薑)과 진피(陳皮)나 소양인에게 사용하는 죽력(竹瀝)과 과루인(瓜蒌仁)처럼 태음인에게 사용하는 조각과 황금의 공력(功力)이 유사하다는 표현이 있다. 조각과 황금을 사용한 생리적 결과가 동일한 것인지, 혹은 효과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인지, 혹은 작용부위가 유사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이제마가 제시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조각과 황금은 치료적인 측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무유고』와 『초본권』에 제시된 황금과 대황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황금은 습이나 열을 해소시키고, 대황은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태음인의 리(裏)부위에 생긴 리열, 리실의 문제를 해소하는 본초들이다. 이는 양명병의 리열 및 리실증을 해소하는 『동의보감』의 대시호탕 용례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동무유고』와 『초본권』에서 황금과 대황을 언급할 때 조각이나 청몽석이 함께 제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무유고』에서는 청몽석에 관한 본초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각의 경우 관규를 통하게 하고(利竅關) 증풍이나 저림 증상 혹은 두통(卒中風痺頭痛) 등에 사용되며, 담(痰)을 삭히므로 기침(嗽)이나 배에 가스가 차는(脹滿) 증상 등을 해소하는 약으로 정리되어 있다⁵⁰⁾. 즉, 조각은 막힌 곳을 뚫으며 담을 해소하는 공력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조각은 대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초본권』 『약방 제삼통(藥方 第三統)』에서는 황금, 대황과 함께 조각이나 청몽석이 함께 사용된 처방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다. 먼저 조각황금대황탕(皂角黃芩大黃湯)은 ‘역기감모(疫氣感冒)’와 ‘대변비결(大便秘結)’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대황 3돈, 황금 2돈, 조각 1돈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¹⁾. 조각황금대황탕의 뒤를 이어 청몽석곤담환(靑礞石滾痰丸)이 제시되는데 그 구성은 대황, 황금, 청몽석으로 앞서 『동무유고』에서 제시되었던 곤담환의 약물조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치증은 제시되지 않는다⁵²⁾. 결국 대시호탕의 용례가 내포된 황금, 대황의 개념은 『초본권』의 조각황금대황탕이나 청몽석곤담환의 두 처방과 연결지어볼 수 있다.

박은 그의 저서에서 황금대황탕은 조각황금대황탕에서 조각이 빠진 구성일 것이라고 추정했다⁵³⁾. 황금대황탕은 앞선 절에서 살펴봤듯이 태음인의 운기병 중 온역의 병증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보인다. 조각과 대황의 조합은 『동무유고』 『태음병』에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태음인의 상한에 해당하는 장감병에 사용되었으며, 『감오본』 『태음인 외감뇌추병론(太陰人 外感腦顛病論)』에서는 조각과 대황만으로 구성된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의 형태로 온병에 사용된다⁵⁴⁾. 조각과 황금의 조합은 『초본권』에서 살펴봤듯이 공력면에서 연관성이 있다. 결국 조각, 황금, 대황으로 구

48) 『東醫寶鑑 內景』 「痰飲」 「滾痰丸...大黃酒蒸, 黃芩 各八兩 靑礞石 一兩 沈香 五錢...」(허준. 수정증보판 신대역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2009. p383.)

49)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六統」 11-7...太陰通膈之藥 輕則大黃 靑礞石 重則皂角 瓜蒂

50) 『東武遺稿 海東』 「東武先師四象藥性 嘗驗古歌 肺藥」 1-2 皂角 辛鹹治利竅關 卒中風痺頭痛寬 消痰止嗽除脹滿 去勞貼腫墮胎難

51)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藥方 第三統」 14-9 皂角 黃芩大黃湯 治疫氣感冒 大便秘結 大黃 三錢 元芩 二皂角 一錢

5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藥方 第三統」 14-10 靑礞石滾痰丸 大黃 黃芩 靑礞石 作丸

53) “黃芩大黃湯의 명칭을 가진 처방은 없으나... 黃芩大黃湯은 皂角黃芩大黃湯에서 皂角을 뺀 처방으로 생각된다.” (이제마 저, 박성식 해설.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경기도: 집문당; 2005. p272.)

5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12-20 龔信曰 溫病 穰穰大熱 脈細小者 死. 溫病 下利痛甚 死. 萬曆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土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四兩 豬牙皂角二兩 麵糊和丸 菉豆大 五七十九丸 一服即汗 一汗即愈 稟壯者 百發百中. 皂角 開關竅 發其表 大黃 瀉諸火 通其裏.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 咳嗽稠粘 噴嚏

성된 조각황금대황탕은 구성 본초들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본 처방의 주치증 중 역기감모는 장감병이나 온병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대변비결은 대시호탕의 용례에서 기인한 리열과 리실에 의한 병증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몽석곤담환은 추가적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의수세보원』에서도 청몽석을 사용하는 처방은 더 이상 제시되지 않으므로 황금대황탕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청몽석곤담환이 『동의보감』의 곤담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때 태음인의 천행병 중 중풍이나 관격과 같은 질환에 사용된 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초본권』의 조각황금대황탕을 이어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조각, 황금, 대황을 사용하는 유일한 처방으로 ‘조각대황탕’이 제시된다⁵⁵⁾. 『갑오본』 조각대황탕은 태음인의 표병에 해당하는 「태음인의감녀추병론」의 표지리병(表之裏病) 양독조삼(陽毒燥澁)에 사용되는데⁵⁶⁾ 양독조삼에는 양명경의 열이 심해져 생기는 양독증과 온병이 속해 있다. 『갑오본』 조각대황탕의 처방구성 역시 『초본권』 조각황금대황탕을 구성하는 조각, 황금, 대황이 그대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초본권』 조각황금대황탕은 『갑오본』 조각대황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갑오본』 조각대황탕은 『신축본』에서 온병에만 쓰는 처방으로 한정되며 구성 또한 변경된다⁵⁷⁾.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시호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본초 중 태음인의 본초에 해당하는 황금과 대황은 『초본권』 조각황금대황탕 형성의 근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각황금대황탕의 병증은 황금대황탕으로 치료하는 리실열의 온병과, 조각과 대황의

조합으로 치료하는 장감병이나 이성구고환의 온병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동의보감』에서 제시된 양명병의 리열과 리실을 해소하는 대시호탕의 병증 중에서 온병의 개념이 황금과 대황의 본초 조합으로 『초본권』 황금대황탕으로 반영되었으며, 황금대황탕을 사용하는 온병 개념에 장감병을 치료하는 조각, 대황의 조합이나 온병을 치료하는 이성구고환의 개념이 더해져서 『초본권』 조각황금대황탕의 병증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각황금대황탕의 개념은 이후 『동의수세보원』에 조각대황탕의 형태로 이어져 태음인 양독조삼(양독, 온병)의 병증을 구성하게 된다(Table 4).

그러므로 대시호탕은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태음인에 사용하는 『동의수세보원』 조각대황탕의 병증과 처방의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동의수세보원』 본문에서 ‘직접적인 용례없이 『동의보감』에서 인용된 주치증만 제시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제마가 『동의보감』외에 다른 서적을 바탕으로 『동무유고』와 『초본권』의 병증 개념을 설정했었을 수도 있으므로⁵⁸⁾ 주로 『동의보감』을 통해 관련 개념들을 인용했던 본 논문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¹⁾. 하지만 『동의수세보원』을 형성한 기본 병증들이 『동의보감』에서 인용되었으므로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된 대시호탕 관련 병증 역시 『동의보감』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본 연구에 이어 조각대황탕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十七方』 ‘皂角大黃湯 大黃 四錢 黃芩 麻黃 升麻 桔梗 豬牙皂角 各一錢’

5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太陰人內觸胃腕病論』 13-9 ‘太陰人 惡寒發熱長感病 爲表之表病 陽毒燥澁 爲表之裏病...’

57)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 ‘皂角大黃湯 升麻 葛根 各三錢 大黃 皂角 各一錢 用之者 不可過三四貼 升麻三錢 大黃 皂角 同局藥力峻猛故也’

58) 실제로 박성식은 『동무유고』의 약성가 내용이 『醫學入門』, 『濟衆新編』, 『方藥合編』에서 유래했다고 보고했다.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實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2;14(2): p5.)

Table 4. The Composition of Jogakdaehwang-tang(皂角大黃湯) and Relevant Prescriptions

處方	大柴胡湯	二聖救苦丸	皂角黃芩大黃湯	皂角大黃湯	
出典	『醫學正傳』	『萬病回春』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出典의 著者	虞搏	龔信	李濟馬	李濟馬	
太陰人本草	大黃2	大黃40	大黃3 [†]	大黃4	大黃1
	黃芩2.5		黃芩2 [†]	黃芩1	
		皂角20	皂角1	皂角1	皂角1
				桔梗1	
				升麻1	升麻3
構成*				麻黃1	葛根3
非 太陰人本草	柴胡4				
	白芍藥2.5				
	枳實1.5				
	半夏1				
	生薑3片				
	大棗2枚				

* 本草 옆에記載된 數字는 本草의 構成量으로 1錢이 基準이다.

† 『草本卷』 黃芩大黃湯의 本草構成으로 推定된다.

IV. 結論

이상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상한론』의 대시호탕은 소양양명 합병에 사용되
는 처방이지만, 『동의보감』의 대시호탕은 양명
병의 리열 및 리실증을 해소하는 처방으로 제시
되며 해역, 학질, 온병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적응증이 확장된다.
- 『동의보감』 대시호탕은 『초본권』에서 황금대황
탕으로 사상의학에 흡수되며 이때 황금대황탕
은 열성하리나 심한 표리구열증을 나타내는 태
음인의 온병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추정된다.
- 『동무유고』와 『초본권』에서 사용되는 황금과 대
황의 조합은 『초본권』의 청몽석곤담환이나 조
각황금대황탕의 처방형태로 반영된다. 특히 역

기감모와 대변비결에 사용되는 조각황금대황탕
의 병증은 『초본권』 황금대황탕의 온병 개념에,
장감병에 사용하는 조각과 대황의 본초 조합이
나, 온병에 사용하는 이성구고환의 개념이 추가
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초본권』 조각황금대황탕의 병증과 처방구성은
양독과 온병에 사용되는 『동의수세보원』 조각
대황탕으로 이어진다. 반면 청몽석곤담환은 『동
의수세보원』에서 연관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결국 『동의보감』의 대시호탕은 여러 단계를 거
쳐 간접적으로 『동의수세보원』 조각대황탕의
병증과 처방구성의 기반이 되므로 『동의수세보
원』에 직접적인 용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치
증과 함께 제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Reference

1. Kim JJ, Park SS. The study of a process to Sasang Constitutional pathology about *Gyemagakban-tang*. J. of Sasang Const. Med. 2005;17(1):25-32.(Korean)
2. Chae IS. *Sanghanmonyukjeon*. Seoul: Gomundang; 2000. (Korean)
3. Hur J. *Donguibogam*. 3rd rev. ed. Seoul: Yeougang; 2005. (Korean)
4.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Liang BM and Cha GS). *Dongmuyogo-Haedong*. 1st ed. Seoul: Haedong; 1999. (Korean)
5.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Park SS). *Donguisseboum Sasang Chobongwon*. 1st ed. Kyungi-do: Jipmundang; 2005. (Korean)
6. Lee JM(translation with notes by Kim DL). *Dongyuseboum Gabogwon*. Seoul: Mokgwato; 2002. (Korean)
7. Lee JM. *Dongyuseboum*. Seoul: Yeougang; 2003. (Korean)
8. Sasang constitutional department of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ngHee University. Clinical handbook of Sasang Constitution Volume 2. Seoul: Hanmibook; 2010. (Korean)
9. Lee SW, Cha WS, Kim NI. The recognition to *Sanghan* in *Donguibogam*.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3;16(2):96. (Korean)
10. Liudujoeu(translation by Jung CH and Kim HI). Liudujoeu's lecture of *Sanghan*. Kyungi-do: Mulgogisup; 2012. (Korean)
11. Park SS. The study on the 『*DongmuSinSaSasang YakSungSangHumGoGae*』's Origin and Meaning. J. of Sasang Const. Med. 2002;14(2):6-7. (Korean)